

[유안타증권 주식시황 Weekly]

주간: 知

너, 이성적 솔림의 동료가 돼라 (7월 1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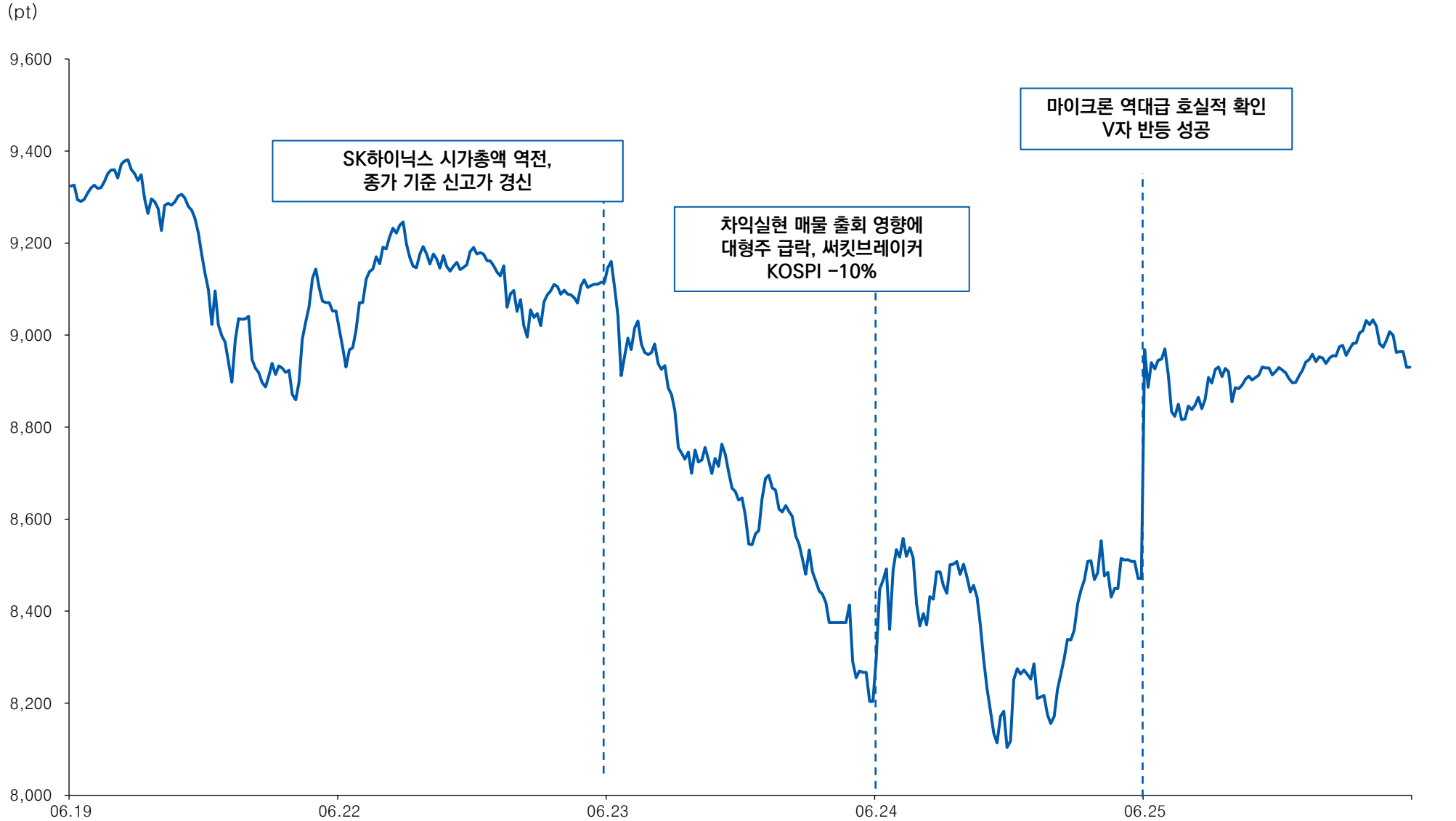
SUMMARY

너, 이성적 쏠림의 동료가 돼라 (7월 1주)

- 주간(6/19~6/25) KOSPI, KOSDAQ은 각각 1.4%, 8.2% 하락했습니다. KOSPI는 9,000pt 진입 이후 SK하이닉스의 삼성전자 시가총액 역전과 신고가 경신으로 단기 과열 부담이 높아졌고, 차익실현 매물과 수급 변동성이 겹치며 장중 서킷브레이커가 발동했습니다. 다만 마이크론 호실적 확인 이후 반도체 업황 신뢰가 회복되며 V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 이번 조정은 펀더멘털 훼손보다 기술적 과열 해소 성격이 강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20일 이평선 이격도와 RSI가 모두 과매수권에 진입한 상황이었으나, 매크로 지표상 문제는 동반되지 않았으며 반도체 수출·메모리 가격·EPS 추정치는 여전히 우상향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 마이크론 실적은 반도체 사이클에 대한 의심을 상당 부분 해소했습니다. 매출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고,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를 뛰어넘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DRAM과 NAND 모두 공급 부족이 2027년 이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전략적 고객 계약(SCA), Take-or-Pay 구조, 가격 하단 설정은 메모리 산업이 단순 Spot 가격 사이클에서 장기계약 중심 산업으로 바뀌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메모리를 시클리컬 산업에서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재평가하게 만드는 핵심 변화입니다.
- KOSDAQ 약세는 수급과 이익의 동시 부진 때문입니다. 개인투자자는 연초 이후 KOSPI를 대규모 순매수한 반면 KOSDAQ에서는 이탈했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 이후엔 대형 반도체주로 수급 쏠림이 더더욱 심화됐습니다. 이익 추정치 역시 KOSPI는 상향, KOSDAQ은 정체 중인 흐름입니다. 여전히 KOSDAQ의 추세적 반등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KOSDAQ RSI가 단기 과매도 구간에 진입한데다 다음주 KOSDAQ 30주년 행사가 예정된 만큼 저가매수성 반등은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 이번주는 7월 2일 미국 고용보고서가 핵심입니다. 고용이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면 금리 부담이 다시 차익실현 명분이 될 수 있으나, 유가와 금리의 하향 안정화로 매크로 부담은 이전보다 낮아졌습니다. 대응은 확산보다 압축입니다. 반도체, IT하드웨어, 은행 등 이익과 수급이 동시에 확인되는 KOSPI 대형주 중심의 이성적 쏠림과 함께하는 접락이 유효하다는 판단입니다.

9천피 진입 후 씨킷브레이커 발동했으나 마이크론 호실적에 V자 반등

KOSPI 주간 흐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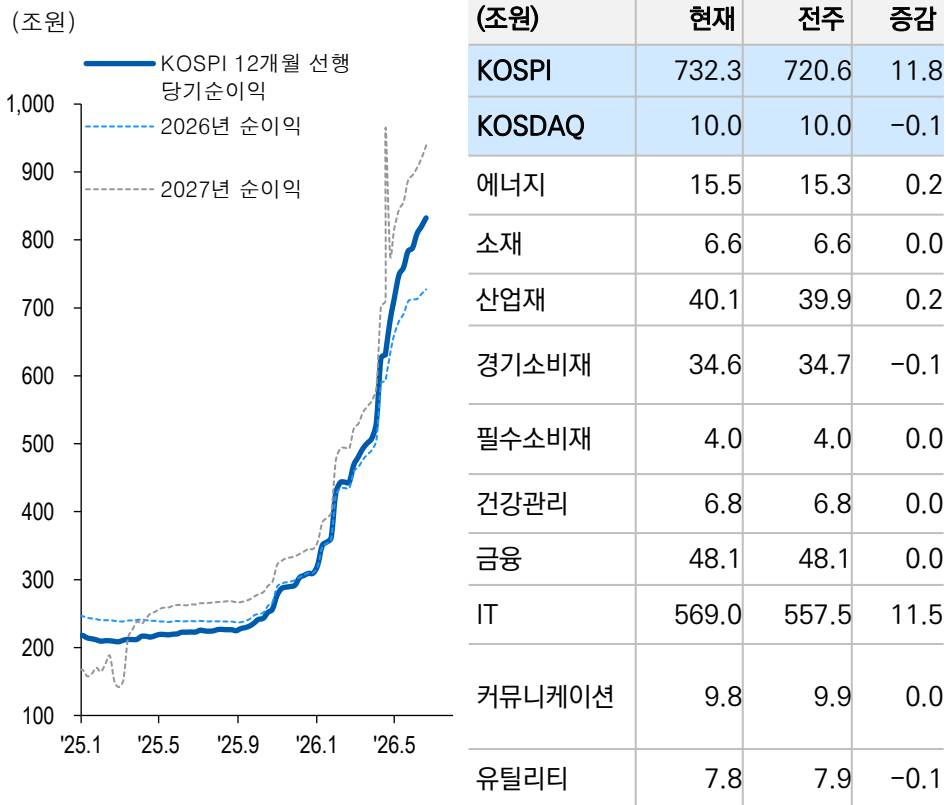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26년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상향 조정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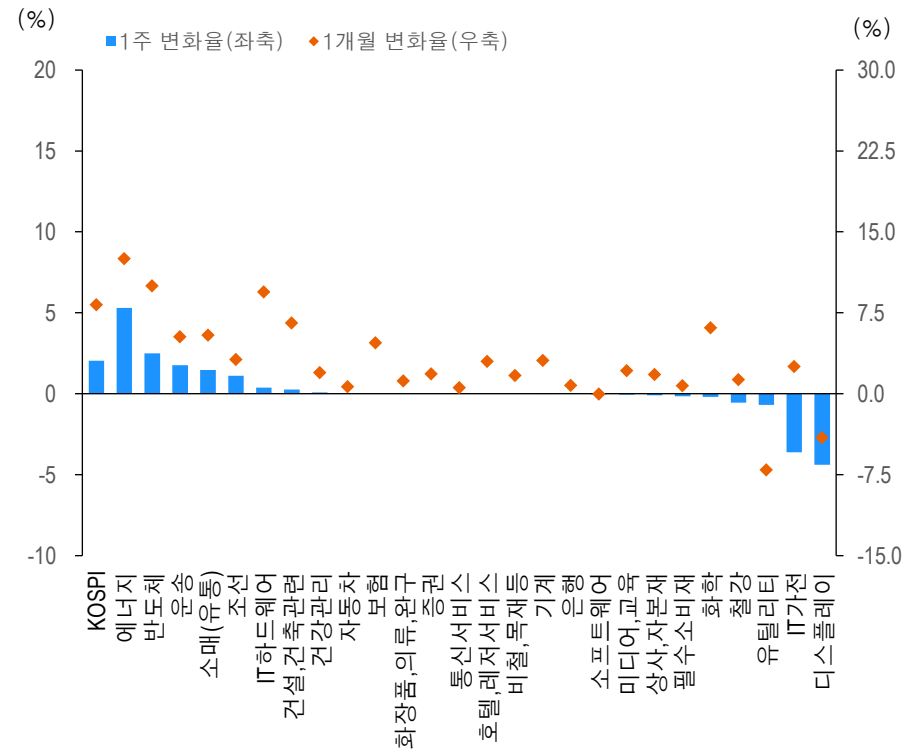
- KOSPI, KOSDAQ 이익추정치 상향 지속. KOSPI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전주 대비 11.8조원 증가. KOSDAQ은 0.1조원 감소
- IT 섹터 중심 이익 증가 지속. 주가 쏠림 현상 더욱 심화되는 이유 = 이익의 쏠림
- 에너지, 반도체, 운송 업종 주간 EPS 상승 상위 업종. 디스플레이, IT가전, 유틸리티 업종 주간 EPS 하향 조정 상위 업종

KOSPI, KOSDAQ 섹터별 당기순이익 컨센서스 추이



자료: LSEG Workspac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12개월 EPS 변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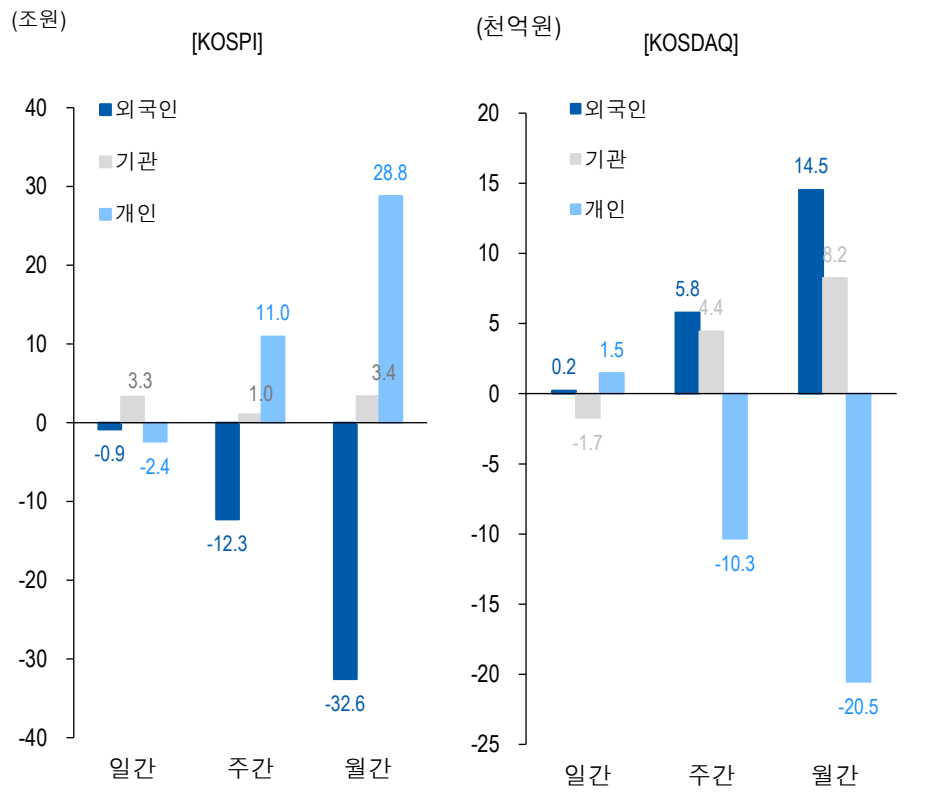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외국인 한주만에 순매도 전환, 개인은 KOSDAQ에서 KOSPI로

- 외국인 주간 12.3조원 순매도. 개인은 지수 낙폭 확대시 KOSDAQ 순매도 및 KOSPI로 자금 이동하며 반도체 대형주 저가매수 지속
- 외국인 전주 순매수 나섰던 반도체, IT하드웨어 재차 순매도. 개인투자자는 해당 대형주 순매수
- 지수 상승 견인 주체 개인투자자인 현 상황에서 개인의 KOSDAQ 순매도- KOSPI 순매수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KOSDAQ 수급에 큰 악재

KOSPI, KOSDAQ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KOSPI 투자자별 순매수·매도 상위 업종

	외국인	기관	개인
순매수 상위	기계	반도체	반도체
	증권	상사, 자본재	자동차
	건강관리	필수소비재	조선
	화학	운송	IT가전
	건설, 건축관련	유틸리티	소프트웨어
순매도 상위	에너지	은행	유틸리티
	IT하드웨어	IT가전	운송
	상사, 자본재	기계	건설, 건축관련
	자동차	조선	증권
	반도체	자동차	건강관리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간 Market Calend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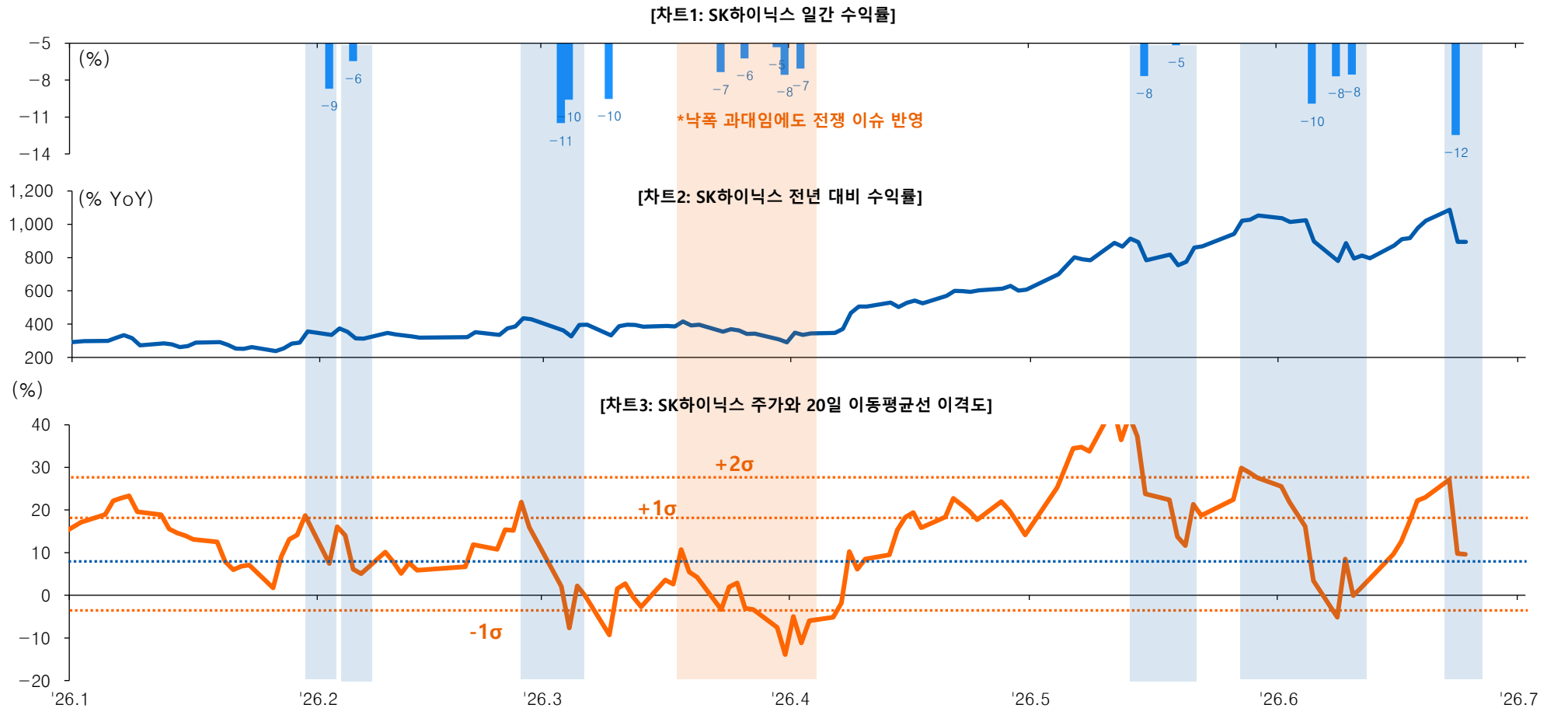
7월 1주차 주간 일정

	6월 29일(월)	6월 30일(화)	7월 1일(수)	7월 2일(목)	7월 3일(금)
경제지표	미국) 6월 달라스 연준 제조업 활동지수	미국) 5월 JOLTs 고용보고서 6월 시카고 PMI, 6월 소비자신뢰지수	미국) ISM 제조업지수 ADP 민간고용	미국) 6월 고용보고서	
정치	청와대-대기업 총수 간담회	우크라 외교장관 방한	홍콩 휴장 코스닥 30주년 행사		
기업		미국) 나이키			
주목 Point	<p>코스닥 현재 RSI(14일)상 과매도 구간 진입했기에 다음주 코스닥 30주년 행사 전후로 저가매수세 단기 유입 기대 가능(장기 추세는 여전히 부정적). 6월 블랙먼데이 야기했던 고용보고서, 7월 2일 또한번 발표 예정. 세부 지표 포함 관찰할 필요. 고용 예상치 상회 시 금리 인상 우려 자극 가능성. 하지만 지난 고용지표는 월드컵 특수로 인한 서프라이즈. 고용 호조로 해석하기엔 무리. 과열된 시장의 차익실현 명분으로 작용. 이번에도 세부 지표 살펴보고 낙폭 과 대 판단시 저가매수 기회로 삼을 필요</p>				

SK하이닉스 급락 회고 ① 급하게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지속되어 왔고 지속될 것이다

- 6월 22일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보통주 시가총액 추월하며 시가총액 1위 탈환. 이후 23일, 전일 대비 12.5% 급락하며 KOSPI -9.9% 블랙투즈데이 야기
- 연초 이후 주가와 20일 이동평균선간 이격도는 -1표준편차 ~ +2표준편차 사이 등락 했으나 시가총액 1위 탈환 당시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이격도 27%, +2표준편차 도달. 결국 급하게 많이 오르는 과정에서 동반된 기술적 조정. 3월 전쟁 시기 제외하고 일일 10% 수준의 주가 급락은 지속되어 왔음

20일 이평선과 이격도 +2 표준편차 수준 도달 이후 일일 10% 수준의 급락은 지속됐다. 앞으로도 상승 추세 유지 속 급등 이후 급락 지속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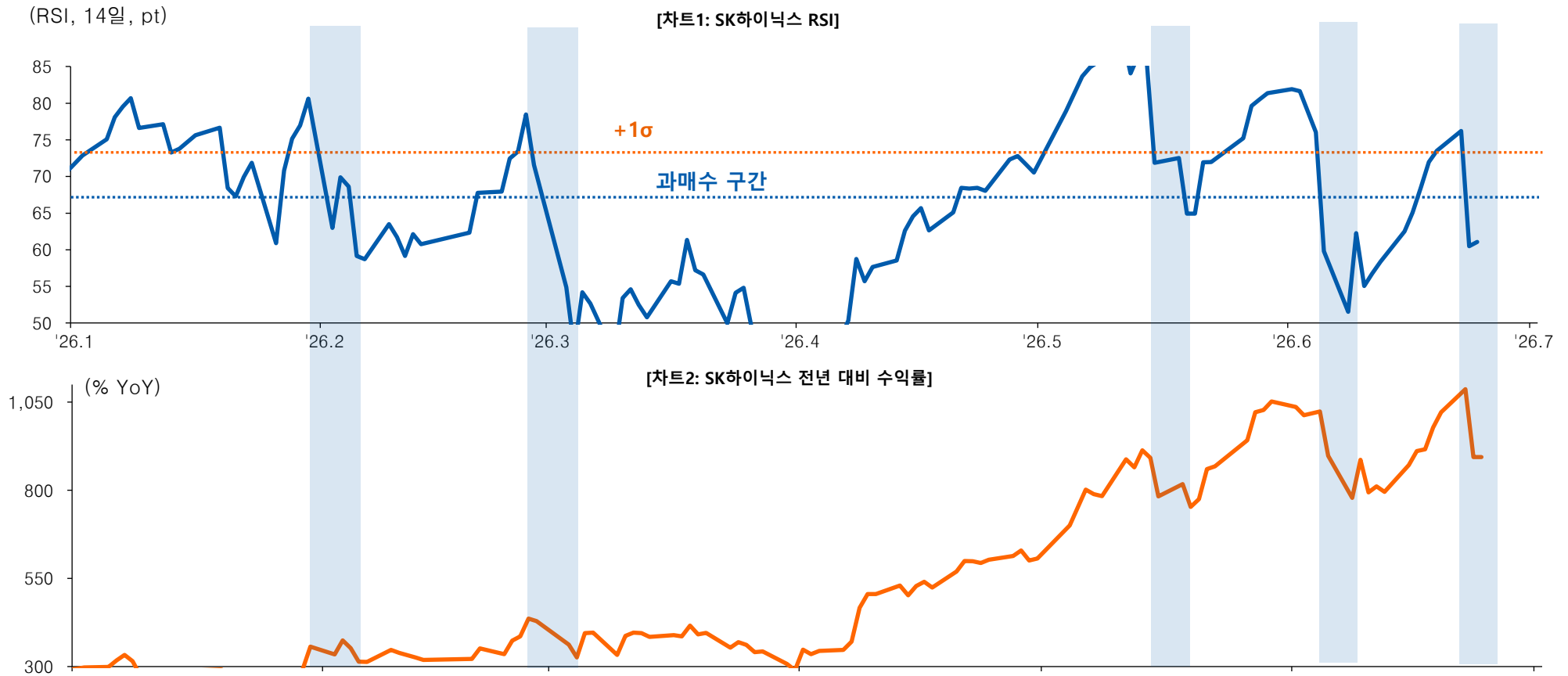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SK하이닉스 급락 회고 ② 기술적 과매수가 장기간 지속될 수는 없다

- 특히 반등 속도 빨랐던 탓에 상대강도지수(RSI) 6/8 블랙먼데이 당시 52pt 이후 10거래일만인 6/22 76pt까지 단기간 급등. 통상적인 단기 과매수 영역 진입
- 통상적으로 강세장 속 상대강도지수(RSI) 장기 평균 대비 높은 구간 유지. 과매수 구간(70) 진입 이후에도 주가 상승 추세 지속됐으나 +1 표준편차 수준의 기술적 과매수 구간에서도 과매수 구간 장기간 유지 불가, 기술적 부담 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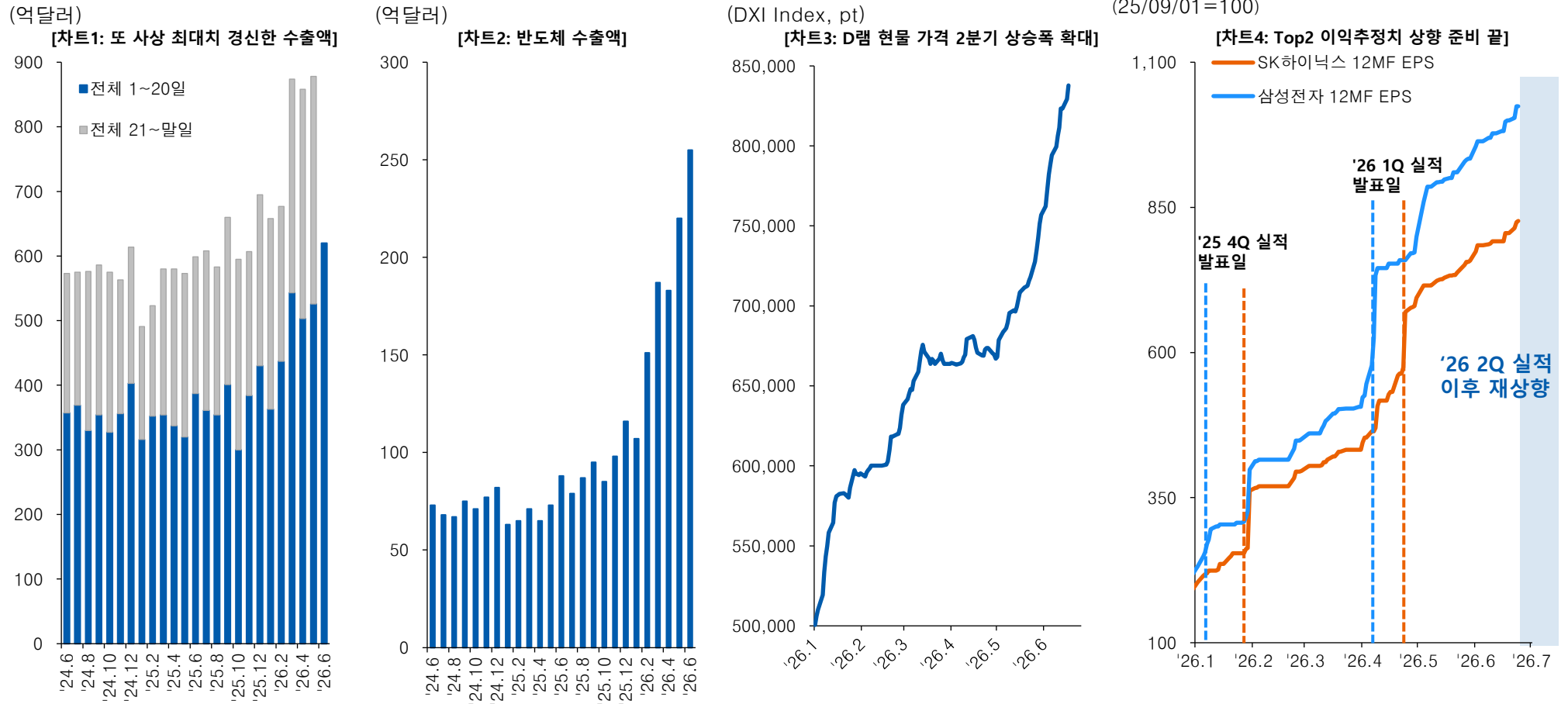
SK하이닉스, RSI 26년 이후 +1 표준편차 진입



SK하이닉스 급락 회고 ③ 펀더멘털에 문제가 생긴 것은 전혀 아니다

- 하지만 6월에도 반도체 호수출, 메모리 가격 상승 추세는 지속. 이익추정치도 완만한 상승 흐름 유지. 2분기 실적 발표 이후 EPS 재차 빠르게 상향될 전망

반도체가 주도하는 수출은 2분기 사상 최대치 경신, 스토리지 가격 상승세도 구조적이고 선형적으로 우상향, EPS도 2분기 실적 이후 재상향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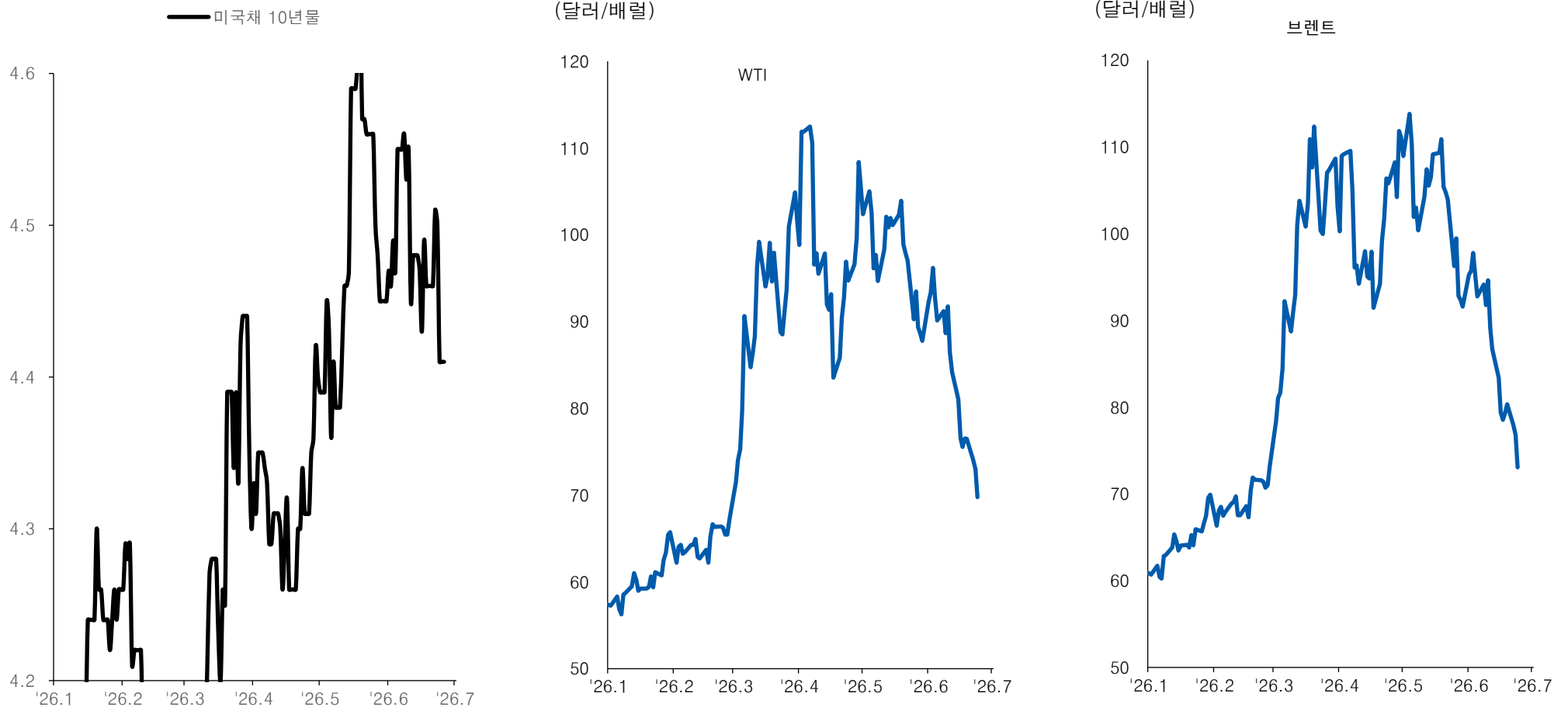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매크로 곡소리는 어디로 가고 유가와 금리의 하향 안정화, 주식시장에 우호적

- 이번주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 시장금리도 4.3% 수준까지 하락하며 빠르게 하향 안정화. 25일 발표된 PCE 물가 역시 예상치 부합
- 전쟁 리스크 프리미엄 제거와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 시장에 자리잡은 연내 금리 인상 확률을 장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는 판단 유지

지정학적 리스크 해소 이후 유가와 금리 빠르게 하향안정화



자료: Infomax,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마이크론 실적이 증명한 업황의 변화

- 모든 시장 우려 잠재울 수준의 호실적. 분기 매출은 414.6억달러, 조정 EPS는 25.11달러(스트리트 컨센서스 상단이 22달러 수준이었음에도 이조차 대폭 상회)로 예상치를 대폭 상회, 다음 분기 가이드선도 매출 500억달러, EPS 31달러로 시장 기대를 크게 상회.
- 더 중요한 건 단순 숫자보다 메시지. 마이크론은 DRAM과 NAND 모두 공급 부족이 2027년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힘. 특히 시장은 구조 변화에 주목. AI발 공급 부족 장기화와 SCA(Take-or Pay) 확대로 메모리 산업이 Spot 시장에서 장기 계약 중심 산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 시클릭얼 산업에서 구조적 성장 산업으로 밸류에이션 재평가 기대

높아진 시장 기대치를 가뿐히 뛰어넘은 호실적과 고점론을 비웃은 가이드선

구분	핵심 내용	투자 포인트
① 실적 서프라이즈	매출 414.6억달러 (컨센 358억달러 상회)	AI 메모리 수요 폭발 확인
	EPS 25.11달러 (컨센 20.8달러 상회)	이익 레버리지 본격화
	Gross Margin 84.9% (사상 최고)	가격(P) + 믹스(HBM) 효과
	4Q 가이드선 매출 500억달러 / EPS 31달러	컨센서스 대폭 상회
	데이터센터 매출 연환산 1,000억달러 돌파	AI 매출 비중 급증
②공급 부족 장기화	DRAM·NAND 모두 수요 > 공급	메모리 슈퍼사이클 지속
	공급 부족 2027년 이후까지 지속 전망	Peak-out 우려 반박
③ 전략적 고객 계약 (Strategic Customer Agreement)	16개 장기 계약 체결	사업모델 구조적 변화
	계약기간 2026~2030년(5년)	장기 매출 가시성 확보
	Take-or-Pay 구조	고객이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계약
	DRAM 20%, NAND 33% 물량 커버	현물시장 의존도 감소
	향후 매출의 50% 이상 SCA 전환 목표	실적 변동성 축소
	가격 Floor + Ceiling 설정	가격 급락에도 수익성 방어
	최소 계약매출 약 1,000억달러(14개 계약)	매출 하방 확보
	선금금·금융약정 220억달러	고객 락인(Lock-in) 효과

호실적 확인. 그럼 ADR 상장까지 예정된 SK하이닉스는? 자사주 매입 삼성전자는?

- SK하이닉스 미국시간 7월 10일 나스닥 ADR 상장 예정. ADR 상장 이후 미국 투자자가 나스닥에서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 직접 비교 가능. SK하이닉스는 매출액과 이익규모, HBM 기술력, 시장 점유율 포함 모든 측면에서 마이크론 대비 비교우위 가지고 있으나 KOSPI에 상장된 영향에 마이크론 대비 밸류에이션 할인 받고 있는 상황. 나스닥, 나스닥100, 미국 반도체 ETF 등으로 편입될 수 있는 경로 열림.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편입 기대감도 존재.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 유효
- 삼성전자 역시 90조원 규모 자사주 매입 검토 보도. 주주환원 기대 부각 지속. 자사주 매입은 유통주식수 감소로 인한 EPS 증가 효과 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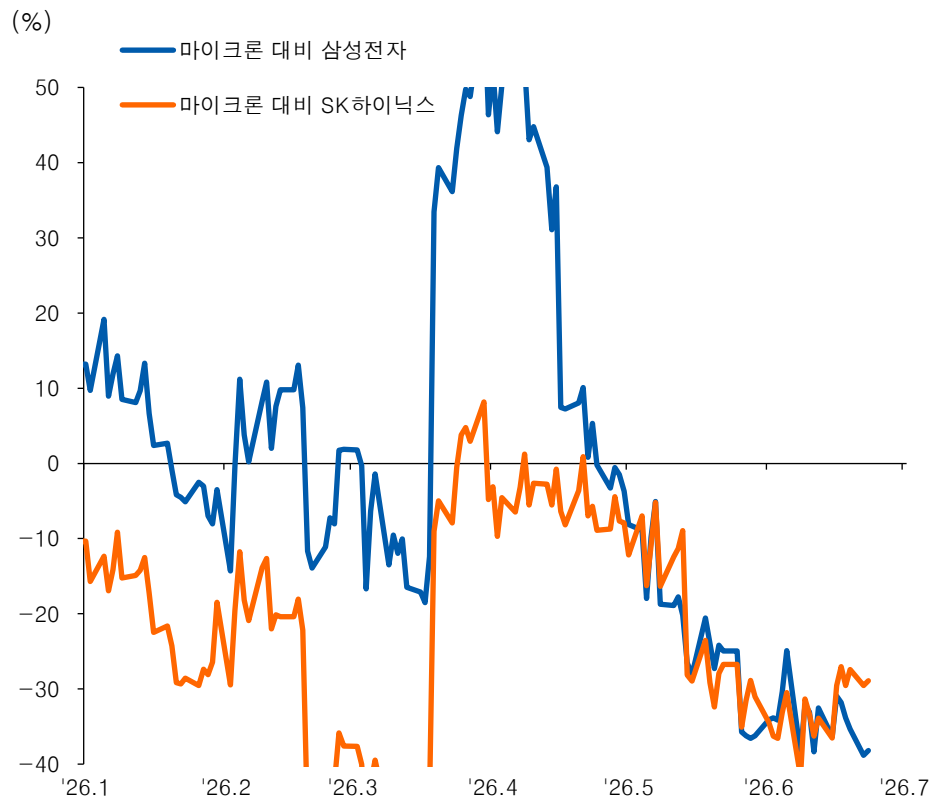
SK하이닉스 ADR 상장 내용 정리 : 국내 시가총액 Top2 주식인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에 편입된다면?

구분	핵심 내용	의미
상장 시기	2026년 7월 10일 나스닥 상장 예정	미국 투자자가 SK하이닉스를 직접 매매 가능
상장 방식	Level 3 ADR	단순 상장이 아니라 신주 발행 + 미국 자본조달 구조
조달 규모	최대 45.4조원 / 294억달러	Capex 자금 확보
희석 규모	신주 1,779만 주, 기존 주식 수 대비 약 2.5%	희석 부담은 있지만 전체 규모 대비 미미
자금 용도	용인 클러스터, 청주 P&T7, EUV 장비, HBM 후공정 투자	HBM·DRAM 공급능력 확대 목적
직접 효과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과 직접 비교	경쟁력 대비 저평가 해소, 멀티플 리레이팅 기대
ETF 수급	나스닥·반도체 ETF 중심 유입 기대	상장 이후 패시브 자금 유입 기대
추가 수급	AI 테마형·이머징 ETF등 외에도 중장기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편입 기대감 유효	단기보다 중장기 편입 수요 기대
핵심 해석	미국 자본조달 + ETF 편입 + 마이크론 대비 재평가	희석보다 리레이팅 기대가 더 큰 이벤트

마이크론 대비해도 저평가 받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쏟림'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 LSEG의 24일 종가 기준 12개월 선행 PER 삼성전자 6.46배, SK하이닉스 6.9배, 마이크론 9.7배
- 23년 2차전자 과열 및 쏠림과 유사하게 반도체 '쏟림'과 '과열'을 논하려면, 최소한 피어와 IT섹터 대비 저평가 받고 있는 밸류에이션부터 해결되어야 할 것

마이크론과 반도체 Top2 12개월 선행 PER 상대강도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메모리 3사 12개월 선행 PER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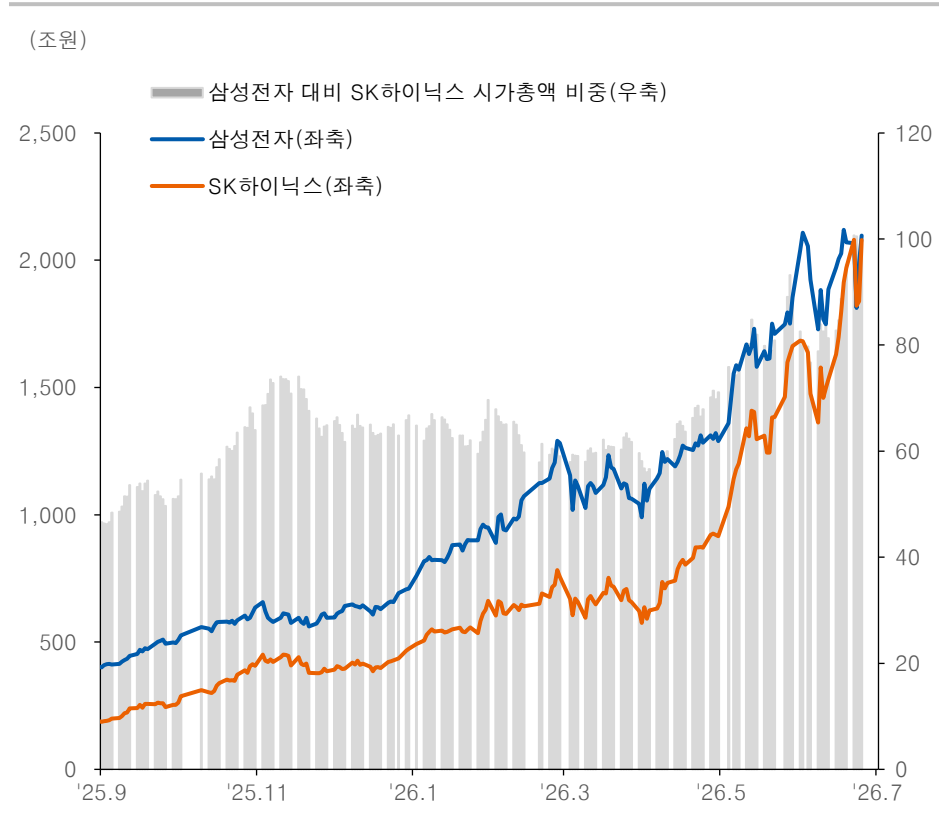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SK하이닉스의 삼성전자 시가총액 역전 현상에 대한 고찰(주가는 둘 다 우상향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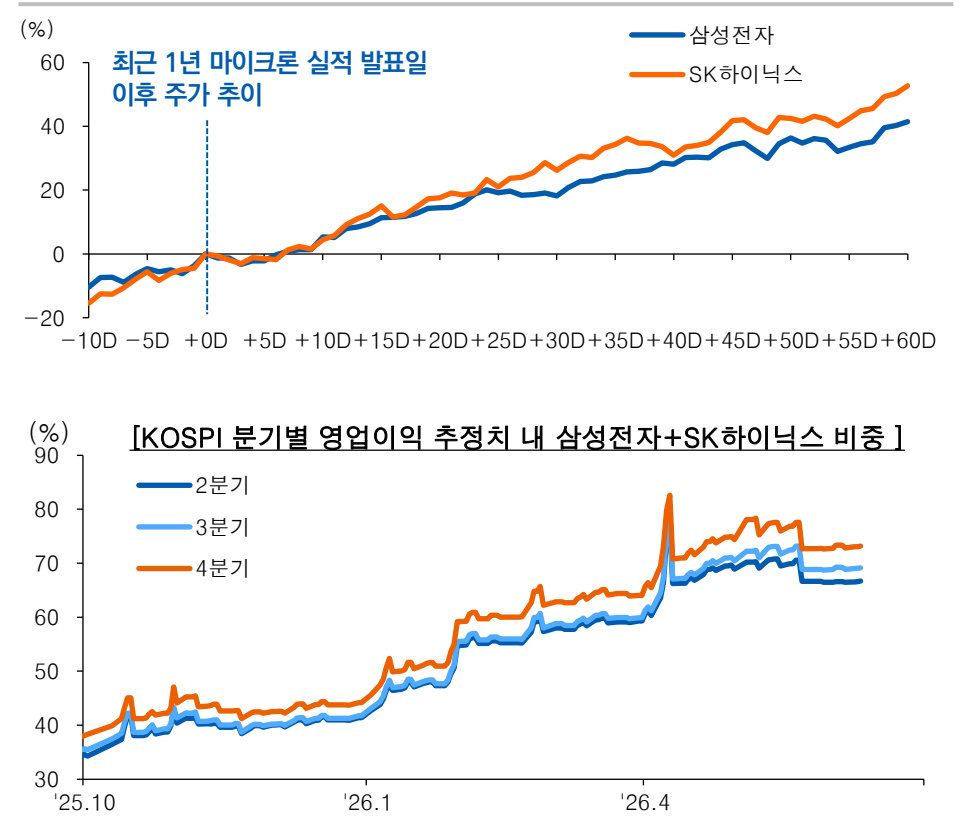
- HBM 주도권, 고부가 D램 비중, 메모리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레버리지, AI 데이터센터향 순수 노출도를 감안하면 이정도 프리미엄을 과열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판단. 삼성전자는 DS 내부에서도 메모리, 파운드리, 시스템 LSI가 섞여 있고 그룹 전체로는 DX 사업부가 메모리 가격 상승을 원가 부담으로 떠안는 구조. 최근 사업부 노조간 성과급 관련 갈등 및 이해관계 충돌 같은 복합적 문제도 존재. 반면 SK하이닉스는 HBM과 메모리 업황 개선이 이익과 ROE 개선에 더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순수 AI 메모리 프록시

ADR 등 모멘텀에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시가총액 격차 역대급으로 축소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마이크론 호실적! 이익을 투톱이 다 버는데, 쓸림이 왜 나쁜 것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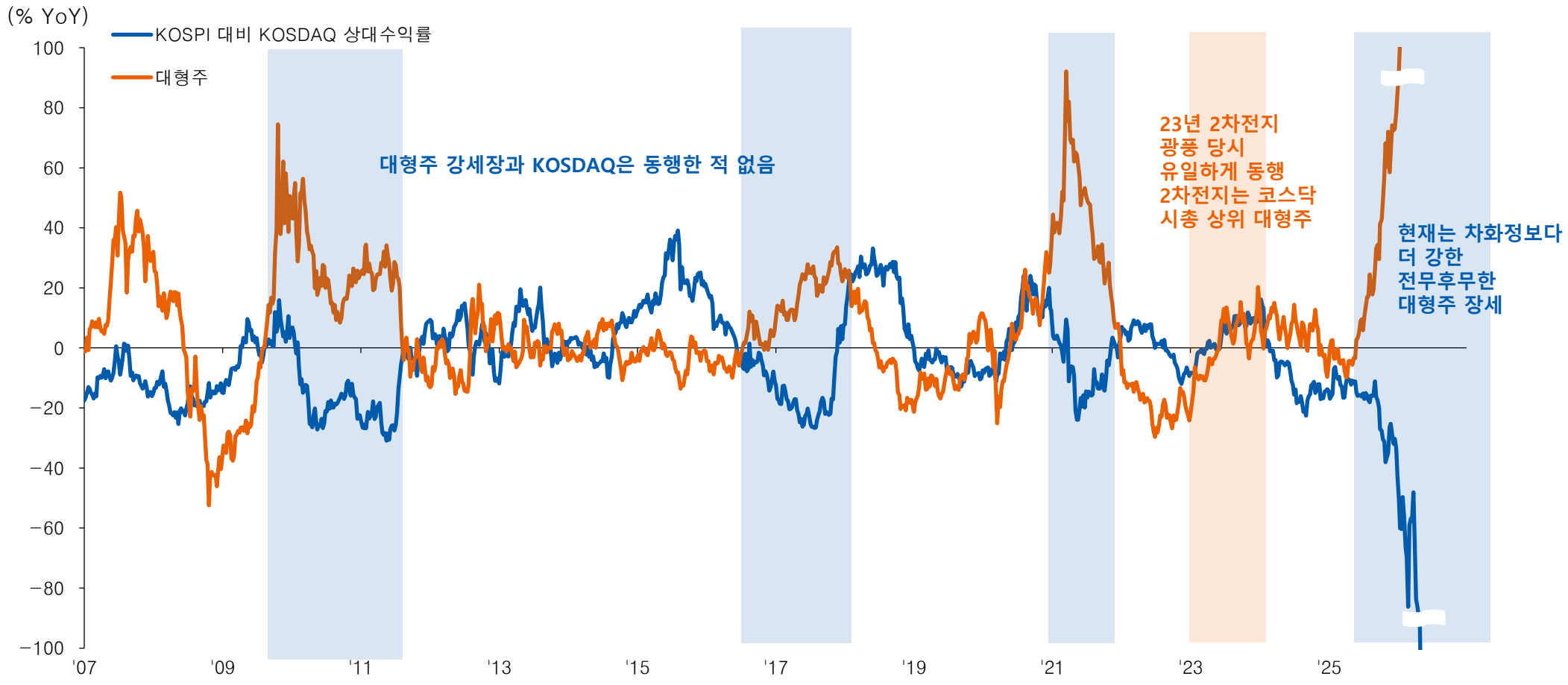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결국 이 모든 전망(반도체 대형주 강세)은 KOSDAQ 약세를 의미한다

- 지금과 같은 삼성전자-SK하이닉스 중심 반도체 강세 및 호실적 대형주 랠리 지속된다면 KOSDAQ 부진 불가피. 수급 대형주에 집중되는 가운데 이익 모멘텀마저 KOSPI 대비 현저히 떨어지는 KOSDAQ은 기술적 과매도 구간 제외하면 순환매도 어려울 전망

대형주 강세장과 KOSDAQ은 동행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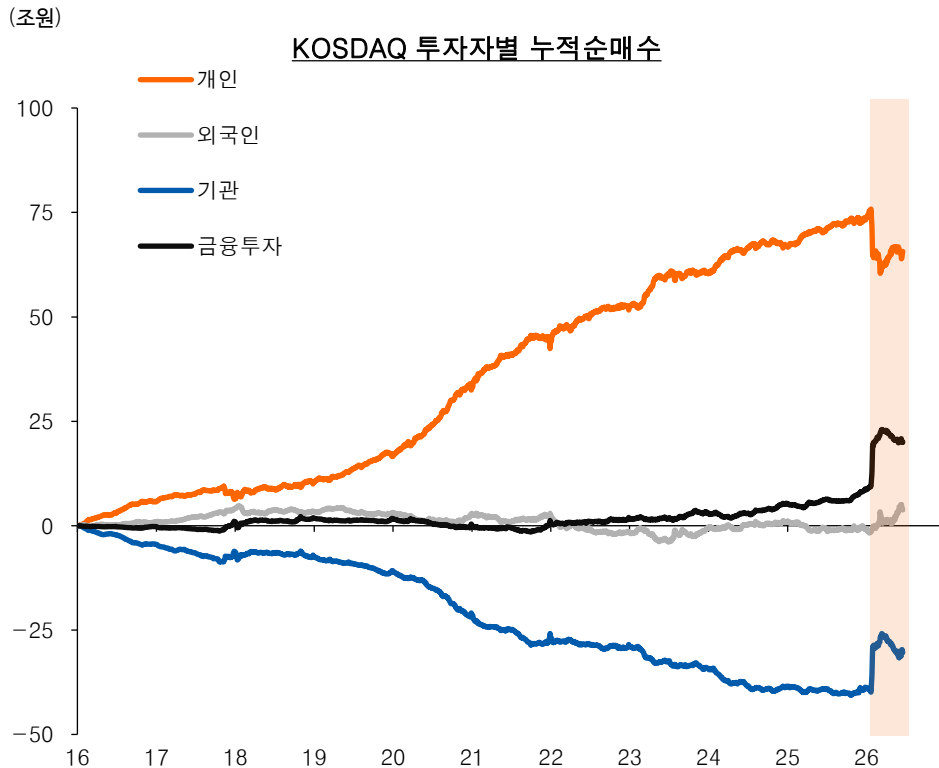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iv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문제점은 수급, 장기 순매수 주체로 자리잡던 개인투자자의 이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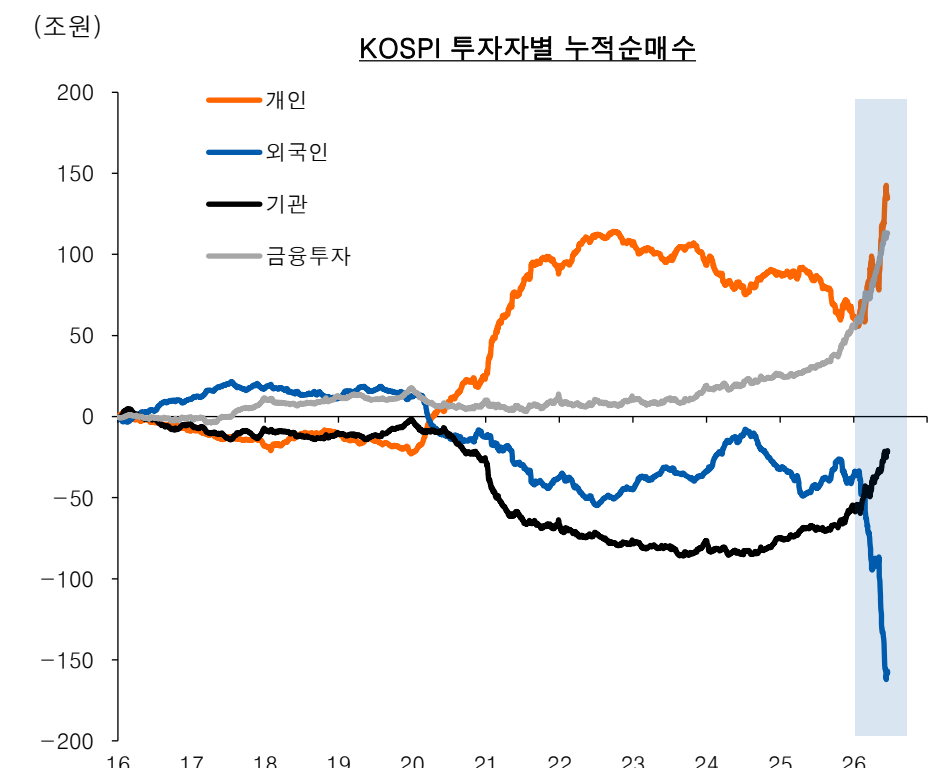
- 개인은 연초 이후(KRX+NXT 합산 기준) KOSPI 119조원 순매수 했으나 KOSDAQ은 5조원 순매도(외국인, 기관 각각 3조원, 8조원 순매수). KOSDAQ 장기 순매수 주체는 개인. 기관은 KOSDAQ 장기 매도 주체 & 외국인인 방향성 베틱 부재. 외국인과 기관 수급은 KOSDAQ 지수 방향성에 영향력 미미

비가오나 눈이오나 장기 코스닥 부양 주체로 자리잡던 개인투자자 자금 이탈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수급은 대형주로 이동, 개인투자자 수급 복귀 위해 대형주 약세 전환 필요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120일 이평선까지 붕괴된 KOSDAQ, 수급 악화 원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 KOSDAQ이 약세였던 것은 사실이나, 경기선인 120일선만은 지지되어 왔음. 그러나 6월 들어 이마저 붕괴되며 연내 신저가 경신. 주요 원인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로 추정. 출시일 이후 대형주 수급 쏠림 심화
- 핵심은 낮은 1주당 가격으로 현재 30만원, 200만원을 넘어선 고가의 대형주에 대한 레버리지 익스포저를 제공한다는 점. 이는 개인투자자에게 대형 반도체주를 매수하는 것 보다 진입 장벽이 낮은 고배타 투자수단을 제공하며, 기존 KOSDAQ 성장주로 향하던 모멘텀 수급까지 대형 반도체 단일종목으로 재배분 시키는 효과. 단순 파생형 상품을 넘어 국내 주식시장 수급 집중도를 높이는 새로운 경로로 작동(KOSDAQ 매도하고 전자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순매수). 결론은 반도체 업황 호조에 따른 이익추정치 상향 지속된다는 전망이 맞다면, 이런 수급 쏠림은 지속 & 심화될 수 있다는 것. 불안 KOSDAQ에 기름을 붓고 있는 상황

어디까지 내려가는거예요? 물을 때마다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120일선 붕괴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5/27) 이후 개인투자자 수급 집중

개인투자자 보유증가 종목명 (레버리지ETF 출시 이후)	누적보유증가(단위 : 백만원)
삼성전자	16211711
SK하이닉스	14334527
KODEX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3180551
현대차	3082874
SK스퀘어	2976428
LG전자	2663441
TIGER SK하이닉스단일종목레버리지	2620906
KODEX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2447229
SOL AI반도체TOP2플러스	1832967
TIGER 삼성전자단일종목레버리지	1691755
LG이노텍	1392181
현대모비스	1283734
KODEX 코스닥150레버리지	1121855
한미반도체	967891
KODEX AI반도체TOP2플러스	733122
두산에너지빌리티	713564
TIGER 미국S&P500	673732
TIGER 미국우주테크	595686
SK텔레콤	555193

자료: 에프앤가이드 Quantwise,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시가 총액 상위 대형주의 이익 & 밸류에이션 차이 뚜렷, KOSDAQ은 종목 선정 중요

KOSPI 시가 총액 Top 10 성과 및 밸류에이션 : 시총 상위 TOP3 PER이 10배 미만

종목명	시가 총액 (조원)	주가상승률 (%)			PER(배)		PBR (배)		ROE (%)		EPS 성장률 (%)	
		1M	3M	1Y	26F	27F	26F	27F	26F	27F	26F	27F
삼성전자	2095.9	22.6	89.7	199.0	8.0	5.9	3.4	2.2	52.3	45.1	634.2	35.6
SK하이닉스	2079.0	50.3	193.2	348.1	9.6	6.9	6.1	3.2	95.9	62.9	447.1	38.4
SK스퀘어	250.6	60.3	213.9	416.0	6.8	5.4	4.5	2.8	88.1	62.5	353.2	24.3
삼성전기	149.2	49.0	339.4	683.1	120.6	70.1	14.0	11.8	12.7	18.7	86.8	71.2
현대차	103	-23.2	0.4	69.7	12.7	11.6	1.1	1.0	8.6	8.9	-1.7	9.9
삼성생명	89.4	22.6	96.5	183.6	31.4	20.9	0.7	0.7	3.5	3.8	22.1	38.9
LG에너지솔루션	84.2	23.4	79.6	116.7	32.3	29.7	1.3	1.2	5.8	5.4	27.4	8.4
삼성물산	82.4	-11.7	-10.7	-4.5	-253.8	62.5	4.1	3.9	0.8	8.7	-68.0	1,098.4
삼성바이오로직스	64.2	-2.1	-12.6	-18.2	32.6	28.6	6.0	5.2	22.6	20.8	79.3	14.3
HD현대중공업	61.1	-14.4	11.3	14.3	20.1	17.2	5.1	4.2	28.6	26.9	69.3	17.2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6월 25일 종가 기준

시가 총액 상위 대형주의 이익 & 밸류에이션 차이 뚜렷, KOSDAQ은 종목 선정 중요

KOSDAQ 시가 총액 Top 10 성과 및 밸류에이션 : 시총 상위 대형주에 2차전지& 바이오& 로봇 포진, 숫자 찍히는 소부장은 KOSDAQ 내에서도 차별화

종목명	시가 총액 (조원)	주가상승률 (%)			PER(배)		PBR (배)		ROE (%)		EPS 성장률 (%)	
		1M	3M	1Y	26F	27F	26F	27F	26F	27F	26F	27F
알테오젠	20.1	2.9	4.6	-16.6	72.9	45.8	28.9	18.1	48.6	48.8	412.7	60.2
에코프로비엠	14.1	-33.3	-29.1	-1.8	372.3	145.1	8.2	7.8	2.6	5.8	-43.1	131.3
에코프로	13.8	-30.4	-32.6	12.3	-	-	-	-	-	-	-	-
레인보우로보틱스	10.0	-31.6	-14.7	9.7	667.4	322.9	67.6	55.6	10.7	18.9	-	106.7
코오롱티슈진	8.5	-6.0	-2.0	26.0	-217.3	-160.7	146.8	43.0	-63.9	-41.4	0.0	0.0
주성엔지니어링	7.8	-25.5	126.8	502.5	120.0	57.7	11.7	9.7	10.4	18.6	30.2	107.6
원익IPS	7.6	27.1	18.6	127.8	44.2	33.7	6.6	5.6	16.3	18.2	120.1	31.2
HLB	6.8	-16.7	-17.5	47.1	36.2	29.5	8.0	6.9	23.7	25.1	30.0	22.8
리노공업	6.5	-3.7	-4.3	-3.5	-	-	-	-	-	-	-	-
이오테크닉스	5.9	-16.8	6.8	75.4	48.7	38.3	7.6	6.5	16.4	18.1	86.6	27.2

자료: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주:6월 25일 증가 기준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주간: 知